

미국 대광 총동창회 동문님께,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문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모교를 위한 후원 모금 운동을 시작해 주신 소식을 접하며, 학교를 대표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머무르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늘 모교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기억해 주시는 동문님들의 마음은 저희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됩니다.

대광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경천애인(敬天愛人)’이라는 건학이념은 그 어떤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교육의 중심 가치로 자리해 왔습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정신은,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대광의 건학이념이자 인재 양성의 기준입니다. 모든 대광인들이 이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사회 각계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듯, 지금 이곳의 후배들도 경천애인의 정신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환이라는 변화와 더불어, 학교는 여러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환경의 제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총동창회의 모교 후원 모금 운동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모교에 대한 사랑과 책임, 신앙 안에서의 연대와 섬김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동문님들의 귀한 정성과 헌신은 후배들에게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그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배움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이 더 이상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학업 수월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동문님들의 후원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경천애인’의 건학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더불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재,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대광인으로 자라나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모든 대광인의 사랑과 기도로부터 비롯됩니다. 동문들의 귀한 헌신에 대광의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 대광 총동창회의 모금 운동이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모교에 대한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인성 함양, 그리고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천애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미국 대광 총동창회와 모든 동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광고등학교장 조순묵 드림